

갤러리 색즉시공



일물 (一物)

간절히 바라움건대
여기에 '한 물건' 이 있으니
이것은 만법의 종원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드러나면 일체중생이
복을 닦는 날이요
그것이 숨으면 삼세제불이 안심하는 곳이라.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하.
한 조각 맑은 바람이요
만고에 밝은 달이로다



그림·글 선진 스님

선진 스님은 ... 1981 사미니계수지, 1986 운문사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1986 비구니계수지, 현 대구 보현암 주지, 2002 법철 대화상 불복장 의식 전수, 대구미술발전위원,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대구지회 이사, 개인전 다수.

“아버지! 낫꽃이 환히 피었습니다”

나를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결혼시키고 부모를 여의는 과정을 통해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다. 소매 끝에 답이 있다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세상에 나와 처음 만난 부처님이니, 부모자식간의 인연이란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은 나의 아버지와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다. 내 인생에서 아버지와 은사님의 존재는 삶의 부처처럼 든든하고 은혜롭다.

누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하겠다. 아버지는 성품이 소탈하고 너그러우시며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였다. 지금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음력으로 산다고 주위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추석만 되면 아이들 추석빔을 장만하면서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이 더 솟아나곤 했다. 어렸을 적 낫, 양말, 옷 등을 골고루 사다주셨던 아버지 생각에 한참 동안은 마음이 몽클해지곤 했다.

아버지는 늘 추석 앞에 청명한 날을 골라 낫꽃을 새로 바르고는 하셨다. 나는 지금도 가을 햇살 아래 드리웠던 아버지의 조용하면서도 경쾌했던 몸짓 하나하나가 선명히 떠오른다.

풀을 썬어 체로 곱게 걸러 놓으시던 모습, 술을 준비하여 종이를 다 떼어내고 문살의 먼지를 털던 모습, 질 좋은 문종이를 치수가 맞게 마름질하여 물살에 골고루 풀칠하여 똑바로 부치던 모습, 대지의 물을 입에 물고 고무고루 폼으시던 모습, 양지쪽에 세워 말리고 어지간히 마르면 문종이를 3~4센티미터 정도 여유를 두어 바르고 국화잎이 나뉠정, 구절초 꽃잎을 붙여 덧바르던 모습.

요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옛 시절의 운치다. 그때는 분무기가 없어 어른들은 냉수로 입을 한번 행구고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내뿜으시는 게 무척 신기했었다. 폼어내는 물이 햇빛에 반사하여 무지개 같은 색깔이 어느 때 눈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소녀가 되어 나도 입에 물고 내뿜어 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아버지께선 새로 도배한 벽에 이렇게 글을 써 붙이셨다. “1.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것 2.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것 3. 어른들께 인사 잘 할 것 4.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것 5. 공부 잘 할 것

아침마다 아버지가 써놓으신 그 글을 학교 갈 때마다 읽어야 했다. 추석에 도배할 때 잠시 내려지는 것 말고는 일 년 열두 달 붙어있던 저 글을 읽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교육이었다. 우리 형제 남매들은 이렇게 써서 붙인 글을 학교 갈 때 가방을 맨 채로 읽고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섰다.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 꼭 인사하는 버릇, 누구를 봐도 공손히 인사하는 버릇을 일찍 아버지께서 익혀주셨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버지께서 평소 해주시던 말씀을 떠올려보면 지혜가 담긴 말씀이 많았다. 아버지의 말씀들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아이들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돌아가신 아버지 평소 가르침들
살면 살수록 그 진가 알게 돼

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중학교 여름방학 때다. 친구 집에 토끼풀을 뜯으러 갔다가 너무 늦어 자게 되었다. 집에 전화도 없애서 연락도 하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다릴 텐데.” 하고 걱정하는 나는 교복을 입은 채로 벽에 기대지도 않고 밤을 반짝 새우고 다음 날 아침, 집을 가니, 걱정하셨던 마음은 다 깨어내고 문살의 먼지를 털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똑같이 눈물이 난다. 막내 동생이 아파서 보건소에 데리고 가느라고 “중간고사 성적야 12등 나왔다”고 말씀드리자 “우리 딸이 일등 한 거나 마찬가지다. 동생 간호하느라고 애를 썼으니까.”라고 위로 해주셨던 분이. 나는 야단을 치는 것보다 격려하고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세상과도 소통하고 좋은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데, 신문을 읽는 습관도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아버지는 다 읽은 신문을 꼭 그날그날 찢어놓으셨다. 동네 분들에게 부탁을 받고 무슨 글을 써주시게 되면 꼭 그 내용을 자상하게 말씀해주셨고, 한 번도 말씀을 거칠게 하신 적이 없다. 옛 어른들이 사람을 볼 때 신언서판(身言書判), 즉 몸가짐, 말씨, 글, 판단력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네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훌륭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학교교육,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기본 인성은 가정교육에서 만들어진다. 아버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해주신 분이. 비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데리러 오셨던 기억, 더운 날엔 때때로 돈을 주시면서 “친구를 하고 아이스케이크 사먹어라.” 하셨던 기억도 있을 수 없다.

결혼할 즈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나의 결혼을 결정해주셨다. “사람은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싫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몇 마디 없애주셨다.

“집안에 손님이 오면 식사를 했다고 해도 쌀부터 씻어 앉히거라. 약주를 하시는 분이 오시면 상차리려고 시장에 간다고 지체하지 말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빨리 해서 안주삼아 내놓아라. 아무리 상을 잘 차려도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약주가 최고대접이다. 그리고 손님이 가실 때는 약소 하지만 꼭 차비를 드려야 한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어른이 계시는가, 아이들이 어린 집인가를 살펴서 알맞게 인사 드려야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세세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참 좋은 교육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께서는 시집간 딸을 위해 송판으로 조그마한 앉은뱅이 책상을 만들어 위에 장판을 깔고 서랍까지 달아주셨다. 나는 그 책상에 앉아 붓글씨를 쓰고 책도 읽었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힘한 말은 하지 말고 둥근 말을 해라. 귀를 둥글게 열어 놓고 둥근 눈으로 세상을 보다 보면 둥근 삶을 살게 된다. 폼도 따뜻하게 앉고 바르게 앉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아이를 가졌으면 바른 생각, 앉은 자세, 걸음걸이, 식습관을 잘 해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밝은 면만 보여주고 가셨어요?” 하고 살짝 원망도 해보았다.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회를 할 즈음 아버지가 다니러 오셨길래 작은 아이를 아버지께 맡기고 운동회에 다녀오니 어린 아이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든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는데, 아버지 내색을 전혀 하시지 않았던 것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다.

다음 날, 2층 베란다에서 “아버지~” 하고 어린애 마냥 손을 흔들어 배운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돌봐주었던 손자들이 이제는 자기 길을 가면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곤 한다. 아버지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셔서 동네 분들에게 ‘해보여’라는 애칭을 얻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 묻는 적이 있다. “아버지, 사람들이 왜 아버지에게 해보여라니라고 해요?”

“그 말 이상 좋은 덕담이 없단다. 낫꽃이 좋다는 거지. 사람은 낫꽃이 좋아야 해,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도. 마음이 한결같으면 얼굴도 늘 웃음꽃이 피어있는 거지.”

세월이 흘러 그 낫꽃의 의미를 알았다. 아버지의 낫꽃을 담으려고 했고, 이제 아버지께 나의 낫꽃을 피워 보내드릴 차례다. 나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세상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랑스러운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남은 세월 잘 살아서 아버지께 꼭 이렇게 전하고 싶다.

“아버지! 낫꽃이 환히 피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환히 피었습니다.”

<여여원 원장>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
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룡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춘양당서점/총정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주문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o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 상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차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반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www.kw-tec.co.kr